

제주드림타워, 2월6일 쿠팡 라이브로 객실 패키지 판매

북한리조트 제주드림타워는 2월 6일 오후 7시부터 쿠팡 라이브를 통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객실 패키지를 판매한다. 개방형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쿠팡 라이브에서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처음이다. 투숙기간은 2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며 성수기(2월 25일~28일, 5월 5일)는 1박당 10만원이 추가된다. 65㎡ 객실 투숙과 조식, 쿠팡 라이브 특전인 라온지38의 올데이 카테일 2잔으로 구성했다.



LG에너지솔루션-GM, 세계 최고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지 짓는다

전기차 배터리 제3 합작공장 설립 3조원 투자

생산능력 50GWh까지 단계적 확장
단독 공장 건설을 통한 투자 계획도
향후 북미에서 200GWh 이상 목표
美전기차 시대 전환 기여해 나갈 것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1위 자동차 업체 GM과 미시간주에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양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서 투자 발표 행사를 갖고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의 제3 합작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 총 투자액은 3조 원(26억 달러)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얼티엄 셀즈 제3 합작공장은 미래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탄생시키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GM과 함께 미국 전기차 시대 전환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3 합작공장, 북미 전기차 시장 핵심기지

LG에너지솔루션-GM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의 3공장은 올해 착공을 시작한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업부장 김동명 부사장(왼쪽)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의회 건물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GM 제3 합작공장' 투자 발표 행사에서 GM 메리 바라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LG에너지솔루션

다. 2025년 초 1단계 양산을 시작해 향후 연 생산 규모 50GWh에 달하는 공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약 7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 얼티엄 셀즈는 오하이오주에 제1공장(35GWh+a), 테네시주에 제2공

장(35GWh+a)을 건설 중이다. 제1공장은 올해, 제2공장은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양사는 두 공장의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며 향후 제3공장을 포함해 연 120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양사가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추가 신규 공장 건설을 확

정한 이유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북미 전기차(EV+PHEV 기준) 배터리 시장은 2021년 46GWh에서 2023년 143GWh, 2025년 286GWh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연 평균 성장률만 58%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얼티엄 셀즈가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GM의 신규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며 “양사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한 얼티엄 셀즈는 북미 시장의 전기차 시대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은 얼티엄 셀즈 신규 공장을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적용한 제조 자동화 공장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기술 선도 업체 독일 지멘스와 ‘제조 자동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멘스 관련 기술을 신규 공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단독 공장 건설을 통한 북미 추가 투자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40GWh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북미 고객사 합작법인과 단독투자를 모두 합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내 생산능력은 200GWh에 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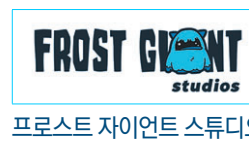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LF몰, 간편결제 서비스 ‘LF페이’ 선보여

LF몰이 간편결제 서비스 ‘LF페이’(사진)를 출시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결제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 여섯 자리 결제 비밀번호만으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 LF몰 앱 마이페이지 내 ‘LF페이 가입하기’에서 등록하면 된다. LF페이 이용 고객에게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결제 시 멤버십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또 결제 카드사에 따라 월별 청구할인 혜택 혹은 최대 10% 포인트 사용 혜택을 제공한다. 이자의 LF 온라인사업 CX본부장(상무)은 “LF페이를 통해 쇼핑 편의를 증대시키고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보다 다가선 맞춤형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며 “향후 고객 쇼핑 경험을 향상시킬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카카오게임즈, RTS 개발사에 2000만 달러 투자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

카카오게임즈는 유럽법인이 유명 실시간 전략시뮬레이션(RTS) 게임 개발자들이 모인 미국 게임 개발사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에 2000만 달러(약 24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시리즈 등의 개발 리더급 경력을 가진 베테랑 개발자들이 모인 신생 개발 업체다. ‘스타크래프트’ 프로덕션 디렉터였던 팀 모튼이 대표이자 프로덕션 디렉터로, ‘워크래프트’ 수석 캠페인 디자이너 출신 팀 캠페인이 게임 디렉터와 사장을 맡고 있다.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첫 RTS 게임은 연내 공개 예정이다.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 받은 RTS 히트작을 만든 탄탄한 개발력을 보유한 검증된 개발사로,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가 선보일 활약이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량 20% 늘린 ‘팔도비빔면 컵 1.2’ 한정 출시



팔도가 중량을 20% 늘린 ‘팔도비빔면 컵 1.2’(사진)를 한정 출시했다. 비빔면 컵 제품의 양이 적어 아쉽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했다. 중량을 기존 85g에서 102g으로 늘렸다. 늘어난 양에 맞춰 액상소프도 6g 더 담았다. 비빔면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스프해빙비도 봉지면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한창민 팔도 마케팅팀장은 “소비자의 활발한 피드백은 제품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중량 제품을 비롯해 시즌 한정판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비빔면 국민브랜드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 C.에비뉴, 설맞이 럭셔리 뷰티 선물 기획전



쿠팡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C.에비뉴가 설을 맞아 ‘럭셔리 뷰티 선물 기획전’(사진)을 마련했다. 기획전은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 에스티로더, 헤라, 프리메라, 바비브라운, 클리닉, 오리진스, 랩시리즈, 맥, 아베다, 달팡, 록시팡, 비디비치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설날 뷰티선물판에선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선물 세트를 특별 혜택과 함께 제공한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LG엔솔, 오늘 코스피 상장...‘파상’ 갈 수 있을까

공모가 2배 상승+상한가 여부 관심
금리상승 맞물린 침체 분위기 변수
성장성 높아 시총 2위 달성 무난할 것



최근 KB증권 종로지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 청약신청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

이억 489억 원을 기록했다.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시 30분~9시에 공모가인 30만 원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

호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총 상장주식 수는 보통주 2억3400만 주, 공모주식 수는 4250만 주(모집 80%, 매출 20%) 규모다. 공모가 30만 원 기준 시총은 70조2000억 원이다. 삼성전자(26일 종가기준 437조 5851억 원)와 SK하이닉스(85조 5403억 원)에 이은 코스피 3위 규모다. 모회사인 LG화학(46조 8733억 원)도 훌쩍 뛰어넘는다.

상장 당일 공모가의 두 배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로 직행하는 ‘파상’ 여부도 조미의 관심사다. 이날 공모가(30만 원)의 2배인 60만 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후 30% 더 오르면 주가는 최고 78만 원을 기록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주당 48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적정 시가총액을 100조 원 내외로 보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 강세는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파상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긴축 우려와 국내 기준금리 상승에 맞물려 국내 증시가 침체 분위기인 게 변수로 꼽힌다.

공모가 대비 23% 오르면 SK하이닉스를 제칠 수 있어 코스피 시가총액 2위 등극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점에서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어 무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위메이드, 고려대에 10억원 상당 암호화폐 기부

국내 대학 최초 ‘위믹스’로 발전기금
미래교육·블록체인 연구 등에 사용

위메이드가 고려대에 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기부했다. 국내 대학이 암호화폐로 발전기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기부금 협약식에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고려대는 기부금을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 및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연구, 학술 활동 등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2018년 블록체인연구소, 암호화폐연구센터를 설립해 지금까지 약 200억 원 이상의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학생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암호화폐 기부는 최근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니세프 등 기부단체는 물론 펜실베이니아



암호화폐 기부 협약을 체결한 정진택 고려대 총장(왼쪽)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제공 | 위메이드

대 등 유명 대학들도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았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보다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자금 유용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암호화폐 기부금의 강점이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는 국내 대학 최고의 블록체인 선도대학이다”며 “게임과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글로벌 오픈 플랫폼 구축으로 게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위메이드가 새로운 유형의 기부를 통해 고려대가 새로운 대학 기부문화를 선도할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 위믹스를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암호화폐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명문사학 고려대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갖춘 글로벌 기술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